내 이름이 천국 가야 나도 간다

(잠언 22:1~16)

1.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2.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5.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이름이 천국 가야 나도 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이름이 천국 가야 나도 간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먼저 내 이름이 천국에 가게 되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에 나도 천국에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름이 먼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이나 기업이나 단체든 항상 이름이 먼저 올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합격자 명단을 볼 수 있지만, 제 때는 직접 학교에 가서 벽보에 붙은 명단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삼수를 하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지망했는데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시험을 못 봤다기보다는 이름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기가 막히는 합격의 감격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1979년에 입대를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형편을 염두에 두시면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달동네에 살다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미군부대 카투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 환경은 마치 지상천국과 같았습니다. 너무나 깨끗했고 푸른 풀밭과 수영장 PX 체육관의 시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미군의 식자재가 직거래를 통해서 한국의 최고급 호텔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서 미국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 대단한 미군부대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제 이름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시험을 봐서

들어갑니다만 그 옛날에는 이름이 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름이 오르는 조건은 힘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 사이에 앞뒤로 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백 있는 자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이에 끼었다가 제 군번도 불렸던 것입니다. 카투사에 들어가도록 이름이 불렸을 때에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3,000명 중에서 12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속했다는 감격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봐서 붙었다면 이 정도 감격은 아니겠지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인해 허락되는 천국가기에는 절차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내 이름이 먼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나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대학이나 카투사와 같이 합격자 명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천국을 간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이고, 이름이 천국에 올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올바르면 저절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로 확신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하는데 흥미롭기도 하고 연결도 기가 막힙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라는 말에서 '명예'라는 말은 히브리어 쉠으로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한다'라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기에 명예를 '이름을 날린다, 명성을 얻는다'라고 의역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구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름으로 직역하는 편이 더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명예를 선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택은 곧 추구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일 수 없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명예를 추구한 적은 없지만 삶의 결과로 명예가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명예를 선택하고 추구하는 것은 복음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면 이름을 택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고, 또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라는 구절이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한다'라는 구절보다 앞에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힌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할 것이요'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의 소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재물보다 이름을 택하려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는

부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뜻하는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는 말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은과 금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은총’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으시고 이 은총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나의 어디에 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은총이 건강에 임해야 할까요? 혹은 자녀나 가족들에게 임해야 할까요? 직장 생활일까요?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물론 아픈 사람이라면 건강을 말할 것이고, 자녀에게 은총이 임하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 대표로 재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에 대해 은총이 임해야 할 곳은 재물이 아닌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보일 수 있는 지혜의 단면입니다.
그러면 이름에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앞서 보았듯이 명예로 번역된 쉠의 본래 뜻은 이름입니다. 이것을 사전적 의미의 명예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한다면 돈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삶의 결과로 명예가 주어질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대로 해석하면 성경은 이름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와야 하는 곳이 바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봉헌식을 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는 곧 천국에 있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는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기적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야 할 곳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는 곧 하늘의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나의 선택과 연관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은총이 임할 곳을 묻고 계십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무엇을 바라느냐고 물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 때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이 어디에 임하기를 원하는지 물으실 때에 그 대답을 솔로몬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나의 이름에 내려지길 바라는 참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면 됩니다. 내 이름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택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하늘의 합격자 명단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는 것은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없는 중에도 마음으로는 재물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이 있어야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만족과 기쁨이 얻어지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택한 자들입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마음이 채워져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로 대표되는 세상의 가치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천국에 등재시켜 주십니다. 내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1절과의 연관성 안에서 2절을 살펴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천국에 등재시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위 이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라는 말은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는 부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머물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가난한 자는 재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입니다. 재물을 흡입하기 위해 삶을 계획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기에 마음으로 재물을 선택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하늘에 올려주실 것이고 그 결과로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투사로 선택될 때에 미군부대가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선택되었을 때에 기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도 좋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지 모르고,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

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천국을 안다면 가난해도 재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드러납니다.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선택하시면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에 가난한 자의 얼마 없는 재산마저도 남는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재산이 십만 원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이 잉여의 재물이 됩니다. 나를 위해 쓸 것이 없게 됩니다. 반면에 재물을 선택하였다면 십만 원이 아니라 십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으니 주어졌다고 여기지도 못합니다. 벌어도 써도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살다보면 삶은 이웃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웃을 위한 삶의 결과로 명예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성을 추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상으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으면 한 순간도 못 산다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생겨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면 어떨까요?
가난한 자가 돈을 벌기 위한 재물을 택하지 않았다면, 부자는 주어진 재물을 쓰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재물을 씀으로써 기쁨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계적 면세점 기업의 CEO인 척 피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5년 동안 남모르게 2,900회에 걸쳐서 8조 3천억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름을 밝히면 기부를 멈추겠다며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씀씀이가 박했습니다. 고작 우리 돈 14,000원 정도의 시계를 차고 다니고, 딸의 핸드폰 사용요금 고지서를 보고 과하다고 여겼는지 공중전화기를 쓰라며 약도를 그려줄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으나 돈을 택하지 않은 부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돈을 쓰면서 생겨나는 기쁨을 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라도 돈을 쓰는 기쁨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 생명을 얻어 만족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필수적 비용 외에는 모든 것이 이웃을 위한 쓰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공평하게 주지 않으시고 부자와 가난한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제적 공평함에는 균등은 있을지언정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자를 나누시고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어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돈의 흐름은 명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쪽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서 사랑과 감격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나눔으로써 사랑을 창조해내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이름이 오르게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도 사랑이 창조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이름은 천국의 합격자 명단에 들어갈 것이고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죽음이 생활화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게 하셔서, 내 이름이 하늘에서 택함 받게 하시며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